

최희섭 '갈비뼈 골절' 판정...2군행

KIA 선수 관리 허술했다

구단 "단순 타박상"...부상 10여일 방치 계속된 통증 호소에 뒤늦게 정밀 진단

“우려가 현실로...”

‘빅쇼터’ 최희섭(28·KIA)이 뒤늦게 왼쪽 옆구리의 골절 판정을 받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최소 3주 이상의 결장이 불가피하다. 데뷔전에서 다친 뒤 아픈 부위를 참고 출전을 강행한 것이 부상을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결국 최희섭의 부상을 방치한 KIA구단의 ‘아마추어’ 식 선수관리도 비난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서정환 KIA 감독은 29일 “최희섭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다. 전날 MRI(자기공명영상) 검진 결과, 3주 가량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1~2주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재활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MRI(자기

공명영상법) 촬영을 받은 최희섭은 좌측 늑골 6번째 뼈가 미세하게 골절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희섭은 앞서 지난 19일 서울의료원과 지난 23일 구단 지정병원인 광주 한국병원에서 CT촬영(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받았을 때 뼈에는 이상이 없고 재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KIA측은 당시 병원의 검진결과만 믿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단순 타박상”이라며 사실상 10여일 동안 최희섭을 방치했다. 오히려 이후에도 두 차례나 선발로 내보냈다.

국내 데뷔전인 지난 19일 잠실에서 두산 정민석과 충돌하며 옆구리 부상을 입은 최희섭은 20일과 홈 데뷔전인 22일 경기에 출전했고, 이후 티배팅은 커녕 간단한 러닝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부상 부위가 더욱 약

화됐다. 최희섭은 결국 23일부터 27일까지 5경기동안 벤치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최희섭이 이같이 부상으로 시름하고 있을 때 KIA구단 일부에선 오히려 “한국 야구에 적응하지 못해 출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말들마저 떠돌았다.

KIA 구단 한 관계자는 “단순 타박상이라는 데 자꾸 아프다고 하니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몸은 아픈데다 자신에게 솔리는 주변의 기대도 크고, 최희섭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발박이 1루수’ 장성호를 외야로 돌릴 정도로 새판을 짠 KIA는 이번 최희섭의 2군행으로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게 됐다.

최희섭을 믿고 서툰을 방출시킨 터라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주를 지명타자로 배치했지만 타선의 무게감이 푹 떨어진다. ‘최희섭 효과’로 한때 들쭉거렸던 한국프로야구의 흥행 물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

한편 최희섭은 모두 3경기에서 14타수 2안타(타율 0.143) 1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 광주에서 만나자”

소년체전 어제 폐막 광주 4위, 전남 12위



광주가 29일 폐막된 제3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8, 은 14, 동 25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4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의 4위 성적은 지난 1992년 소년체전 부활 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지난해 종합순위 3위에는 못미치지만 강호 서울·경기의 독주와 개최지 이점을 안은 경북의 전력상이라는 틈새에서 거둔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은 금 17, 은 25, 동 36개를 따내 당초 목표인 10위 달성에 실패했고 지난해와 같은 종합순위 12위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 효광중은 대회마지막날 상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여중 펜싱 에페에서 강원 춘천여중을 45대39로 꺾고 소중한 금메달을 따냈고, 남중 에페 광주선발도 경기선발을 45대44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해 막판 레이스에 힘을 실었다.

금호중은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정구 남중 결승에서 인천선발을 2대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추가해 광주의 막판 4위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특히 금호중은 정구 출전팀이 연합팀인데 반해 단일팀으로 출전, 금메달 위업을 이룬 광주의 전력에 큰 힘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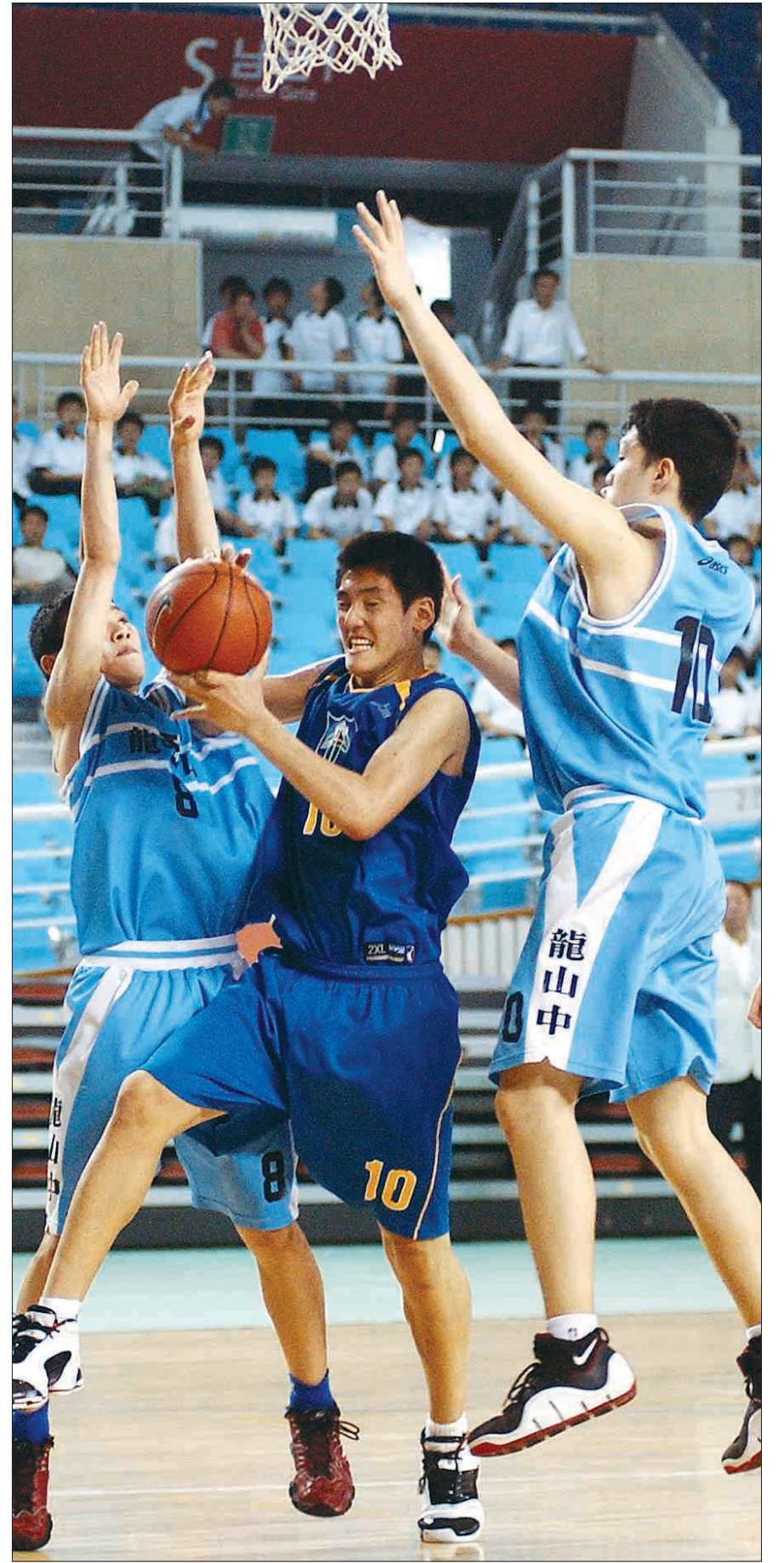
전남은 막판 순위 상승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경쟁사인 부산을 누르지 못해 순위 상승에 실패해 지난해 성적을 유지했다.

이날 전남은 정구 남초와 여중 전남선발이 각각 대구선발과 경북선발을 2대0, 2대1로 꺾고 우승해 막판 전남의 순위 레이스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황준호(안도중)도 안동 한국생명과학고에서 열린 복싱 중학부 라이트플라이급에서 제주 강격석을 누르고 마지막 금메달을 더했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금메달 수는 줄었지만 총 메달집계 64개에서 78개로 14개가 늘어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대회 종합우승은 경기도에 돌아갔으며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은 광주에서 열린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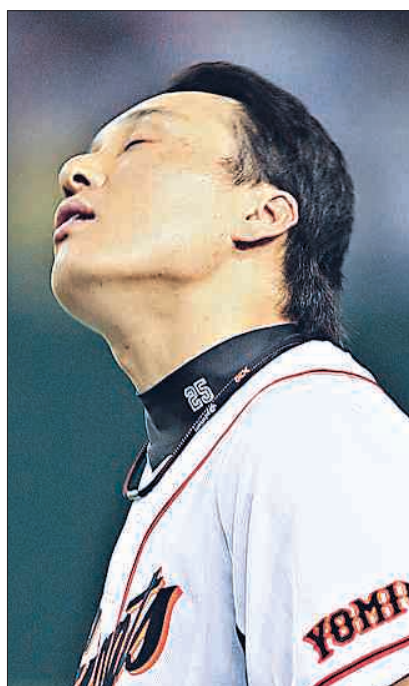


29일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소년체전 중학 농구 결승에서 광주중앙중 석중태(가운데)가 용산중 수비수의 저지를 뚫고 슛을 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승엽 '주춤'

日인터리그 1주 2주 중간 성적표

병규 '펼 펼'



일본프로야구 인터리그 첫 주가 끝난 가운데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는 초강세를 보인 반면 교류전 출전왕 3연패에 도전하는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은 주춤했다.

승엽

홈런포 오랜 침묵
타율 0.250 부진

병규

타율 0.417 맹타
초구 공략법 주효



이병규는 22일 지바 롯데 마린스와 2연전을 시작으로 세이부, 니혼햄 등 인터리그 6게임에서 타율 0.417(24타수10안타)로 불꽃타를 휘둘렀다.

같은 기간 타점도 5개를 올리고 3경기 연속 2안타 행진을 벌이는 등 한 때 0.240대까지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0.266까지 끌어 올렸다.

이미 센트럴리그 경쟁팀인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마쳐 대결이 부담스럽지만 퍼시픽리그 투수들은 서로 처음 상대한다는 점에서 이병규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이병규는 이날까지 초구를 공략해 0.450의 고타율을 올렸고 3구 이내에 상대 투수 공을 받아냈을 때에도 타율 0.333(99타수 33안타)으로 시즌 타율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로 잔 듯한 제구력으로 타자를 유인하는 센트럴리그 투수와 달리 퍼시픽리그 투수들은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파고 들어 초반 승부에 감정을 보인 이병규도 더욱 신이 난다.

반면 19일 주니치전에서 시즌 11호 아치를 그린 이승엽은 니혼햄, 라쿠텐, 오리кс 등을 맞아 열흘째 대포 가동을 멈췄다.

리그 홈런 1위 타이론 우즈(주니치·19개)도 동반 침묵 중이어서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찬스를 맞았지만 2루타만 4개를 터뜨렸을 뿐 펜스 바깥으로 타구를 날리지 못했다. 인터리그 타율은 0.250(20타수5안타).

급기야 이승엽은 28일 오리кс전에서 홈런 3방을 혼자 쏘아 올리며 5타점을 쓸어 담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에게 팀 내 홈런(14개) 및 타점(36개) 선두를 내줬다.

경기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른 3번 타자 오가사와라는 인터리그에서 3경기 연속 홈런에 타율 0.380으로 순항 중인데 4번 주포인 이승엽이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쳐 줘야 팀 승리가 보강된다는 점에서 그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

이승엽이 때린 홈런 중 올해 팀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포는 5월16일 요코하마전 때 쏘아 올린 결승 3점포 뿐이다. 왼쪽 어깨 통증 탓에 인상적인 활약을 드물었던 게 사실. 선제 홈런이 1방, 동점포가 2방, 승리를 굳히는 아치가 5개였다.

한편 리그 선두 자리를 놓고 접전을 펼치고 있는 요미우리과 주니치는 인터리그에서 각각 2승3패, 3승3패를 거뒀다. 센트럴리그가 10승1무23패로 열세인 점을 고려하면 두 팀이 선전 중임을 알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시즌 3승 쾌투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이적 후 세 번째 선발 출전에서 빛나는 호투로 시즌 3승을 올렸다.

김병현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방포 경기에서 선발 투수

로 6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3개만 내주고 실점없이 5-3 승리를 이끌었다.

김병현은 지난 19일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전에서 이적 후 첫 승리를 따낸 뒤 열흘, 두 번째 경기 만에 시즌 3승(2패)을 챙기면서 상승세를 탔다.

투구 수 105개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66개였고 삼진 5개를 잡았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5.16(중전 7.02)까지 내려갔다.

김병현은 스트라이크존 양쪽에 걸치는 날카로운 슬라이더와 목직한 직구를 뿌리면서 컵스 타선을 공포 무였다.

김병현은 팀이 2-0으로 앞선 7회 초 타석에서 대타 토드 린드스로 교체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남녀 초등정구 “우리가 전국 최고”

체전 막판 금 2개 추가 전남 메달 경쟁에 한몫

‘남녀 초등 정구 만세!’

29일 제36회 전국소년체전 마지막날 정구 남녀 초등 결승전이 벌어진 문경시민정구장. 전남 여자선발팀이 개최지 경북선발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 전남 도교육청과 전남체육회 관계자 등 응원단은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선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남은 당초 지난해 12위에서 두계단 상승한 10위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기대했던 단체종목과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내지 못하는 등 금메달 3개 밖에 추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결승에 진출한 남녀초등 정구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다면 자칫 추락할 수 있는 전남 순위를 지난해와 같은 12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전국최강 전력인 남초선발은 손쉽게 우승을 따냈고, 여초선발은 개최지 경북의 경기지연 등 텃세를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해 전남의 막판 순위 상승에 효과노릇을 톡톡히 했다.



왼쪽 아래부터 정아름, 김솔지, 황수미, 이미지,윤민영, 이슬지, 서연희, 정혜인(여초 선발), 뒷줄 왼쪽부터 임종섭 광양옥곡초 코치, 김보훈, 이상원, 이준혁, 김지민, 권이진, 김병석, 박희용 선수(남초 선발), 김순희 광양서초 코치.

남초선발은 광양옥곡초를 중심으로 고흥점암초, 순천 남초 연합팀이고, 여초선발은 광양서초를 주축으로, 장흥대덕초, 순천 북초가 연합팀을 꾸렸다.

광양옥곡초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합팀을 꾸린 남초 전남선발은 이번대회 우승으로 역대 소년체전 14번 출전에 10번 우승,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해 전국최강 전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광양서초 선수들이 주축인 여초선발은 소년체전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의 쾌거를 이룸에 전남의 막판 순위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여자선발 주축팀인 광양서초는 학교에 연습 코트도 1면밖에 없어 광양서초정구장에서 연습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첫 금메달을 따 더욱 큰 감격을 맛봤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